

## 현대 독일어의 3격, 4격 표지 원리

이영미(중앙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독일어의 격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법교재 및 교과서에서 격의 등장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 어떤 의문도 제기 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동사구 영역에서 직접 목적어 *direktes Objekt*는 곧 4격 목적어 *Akkusativobjekt*라고만 규정한다. 이러한 일치가 어떤 원리에 기반을 두는지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른 명사구들과 4격 표지 *A-Makierung*간의 관계 또한 등한시되었다.

전치사 격 영역에서 격 규정에 대한 포괄적인 원리를 탐구하면서 무엇보다도 문법의 거부가 명백히 나타난다. 지금까지는 *in*-전치사 그룹(*in, auf, an, vor* 등 이와 같은 전치사를 여기서는 *in*-그룹<sup>1)</sup>이라고 명한다)과 관련된 극히 제약된 경우에 나타나는 격 규칙에 대해서 연구되었다. 그밖에 다른 경우에 대해선 엄격하게 확정하거나 기술하지 못했고 2격, 3격 또는 4격을 지배하는 전치사들만을 경우에 따라 단순히 나열하였다. 이런 목록작성 시에 기준이 되는 분명한 원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일부 원리에 대한 상세한 기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치사적 격지배는 대부분이 역사적 우연이며,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만 원리에 토대를 두고 그 원리는 또한 비 전치사적 영역에 적용될 수 없었다.

이미 몇몇 학자들은 *in*-그룹 전치사와 관련해서 형성된 격 규칙이 넓은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전치사의 독점적 3격 지배 및 4격 지배를 이러한 격 규칙을 통해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up>2)</sup> 이 논문에서는 전치사영역 및 비 전치사적 영역에서 3격 및 4격 표지가 하나의 통일된

1) 독문법 분야에서 3,4격 지배 전치사로, 독어교육 분야에서 *Wechselpräposition*이라고 통용되고 있다.

2) Leys, O.(1993), S. 97.

원리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통적인 격 규칙들의 가치 및 효과에 대해 기술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봄, 나아가 3격 및 4격 표지를 위한 통일적 원리에 대한 좀더 발전된 가정을 기술하고 그것의 효과를 제시할 것이다.

## 2. 전통적인 격 규칙에 대한 기술과 문제점

먼저, in-그룹 전치사에 대한 전통적인 격 규칙에 대해서 상기해 보고자 한다. 이런 전치사에 따라서 격을 규정하기 위해서 문법의 전통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규칙들이 제시된다. 정지 내지는 이동관계, 위치 내지는 방향관계, 장소전환관계 translokal 내지는 장소 내부관계, 발생 내지는 존재의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전치사 목적어의 3격 및 4격 표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우선, 그때마다의 격 규칙들이 (1),(2)의 경우처럼 전치사들을 공간관계에 적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1) a. Sie standen in dem Saal.
- b. Sie traten in den Saal. (hinein)
- (2) a. Sie tanzten in dem Saal.
- b. Sie tanzten in den Saal. (hinein)

이와 같이 공간관계를 토대로 한 격 규칙들은 대개 비 공간관계로 전이될 수 있다. 즉, (3)처럼 시간 관계로, 또는 (4)와 같이 어떤 또 하나의 관계로 전이 될 수 있다.

- (3) a. Wir leben im 20. Jahrhundert.
- b. Die Arbeiten zogen sich bis in den Herbst hin.
- (4) a. Es geschah in der besten Ordnung.
- b. Er verwandelte sich in einen Käfer.

추상적 관계에 있는 격이 추가로 증명될 수 있다(예를 들어 glauben an + A, zweifel an+D). 구체적인 공간관계가 추상적인 관계에서 더 이상 감지될 수 없기 때문에 공간관계와 관련해서 발전된 격 규칙들은 당연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없다(예를 들어 in dieser/auf diese Weise).

## 2.1. 정지 내지는 이동관계 및 위치 내지는 방향관계

in-그룹의 전치사에 대해 3격은 정지관계를, 4격은 이동관계를 나타낸다는 규칙은 그것의 효과가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규칙은 Duden-Grammatik에서 적용한 것과 같이 부분 격 규칙으로서 간주할 수 없다.<sup>3)</sup> 왜냐하면 in-전치사 그룹 내에서 3격 및 4격 교체를 제외하고 정지 대 이동이라는 의미적 대립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대립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고유한 격 규칙의 동반현상일 뿐이다. 또한 정지 대 이동이란 의미적 대립은 동사의 속성에 해당한다. 이런 속성만을 가지고 정지나 이동의 동사와 관련된 전치사목적어의 기능에 대해서 파악할 순 없다.

위치관계에 있을 때 3격이 등장하고 그와 반대로 방향관계가 존재할 때 4격이 나타난다. 우선 이 규칙은 통례적으로 정당하게 보인다. 예를 들면, 그 규칙에 따라 (1)뿐만 아니라, (2)를 설명할 수 있다.

이 규칙의 문제점은 그 규칙에 포함된 방향성 Direktionalität 개념이다. 4격과 이 개념의 결합은 전치사 지배체계에서 확실히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미 수많은 학자들이 지적 해왔다.<sup>4)</sup>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방향성 개념을 in-그룹에서 4격 할당을 하기 위한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면, 다른 한편으로 전형적인 방향전치사인 zu 및 nach는 4격이 아니라, 3격을 지배한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한다. 물론, 이런 반론은 암암리에 다음과 같은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격 규칙은 in-전치사 그룹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그룹 외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a/2b)같은 문장에서 방향관계가 전혀 문제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로써 우리는 4격 표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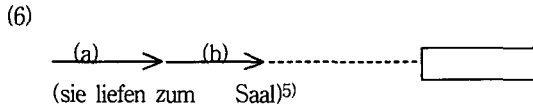
3) Duden(1995), :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5.Aufl.) Mannheim. § 680.

4) Vgl. I. Dal(1962), S. 57; Brinkmann(1962), S. 155.

원리로서 방향의 개념을 완전히 배제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5)와 같은 문장에서 방향관계는 3격 전치사 zu에 의해서 표현된다.

(5) Sie liefen/tanzten zum Saal.

위의 전치사 목적어 의해서 나타난 공간은 행동의 목표점나 기준점을 기술한다. 그 공간에 아직 도달하지 않고 그 공간에 반드시 도달하지 않아도 된다. 이동의 목표점 내지 기준점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동의 구성성분으로서 간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이동의 외부의 지시점 Referenzpunkt이다. (5)에서 나타난 관계들을 (6)과 같은 도식으로 기술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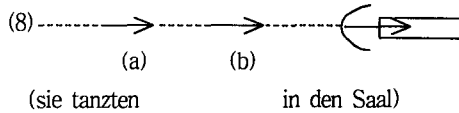
(6)은 목표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지만,(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을 말함) 단지 가정될 뿐이지, 미결로 남아있다. (1a)와 (1b)처럼 4격 표지된 전치사구의 경우에 완전히 사정이 다르다. 비록 사정에 따라서 전치사구에 의해 나타난 공간이 정해진 이동의 목적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선 사건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표현된 공간 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동 및 전치사구에 의해서 나타난 공간의 말기 단계 terminale Phase로서 간주한다. 그 공간은 곧, Saal의 in-영역, 그것의 최종영역으로서 간주한다. 이 공간은 이동의 구성적인 부분이지, 외부의 목표점이나 지시점의 일부분은 아닐 것이다(그 공간은 wohin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wohinein을 통해서 질문될 수 있다). (7)의 이야기

5) zu와 관련하여 Ley(1994)는 방향적인 zu는 목표의 도달에 관해서는 지극히 중성이며 기대에 관해서는 긍정적이다. 실제로 목표의 도달을 내포하는 면에서 bis가 zu보다 더 강하다.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려는 기대를 포함하지 않은 wärts와 in (der/die) Richtung은 더 약하다. 사정에 따라서 in은 방향진술어로서 간주하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zu로 교체한다(vgl. in die Stadt/zur Stadt fahren). Schröder(1986)는 이와 관련하여 “정말로 공간에 도달한다면 in은 의무적이다. 이와 비슷한 근사치를 생각한다면, nach와 zu일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는 공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야기가 더 이상 길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7)\*Die Flüchtlinge rannten in den Bahnhof, wurden aber unterwegs noch gestoppt.

(2b)와 같은 관계들은 (8)와 같은 도식으로 기술한다.



(5)와 같이 정해진 이동은 방향 진술어를 통해서 이동 말기이전의 과정을 고려하는 반면에, (8)에서는 반대로 이동말기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동의 앞부분은 (도식에서 점선을 그은 부분)은 단지 추측될 뿐이다.

## 2.2. 장소전환 내지는 장소 비전환 관계에 의한 격 규칙

Behagel는 이중지배 Doppelrektion를 갖는 전치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sup>6)</sup>. 장소 동사들과 등장하는 전치사는 3격과 장소전환 동사들과 등장한 전치사는 4격과 관련이 있다. 먼저, 장소비전환 및 장소전환의 개념은 동사가 아니라 동사 과정 verbaler Prozess과 결합된 관계와 관련이 있다. Duden-Grammatik에서는 어떤 공간에 머물러 있을 때, 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머물 때 3격을 사용하고 공간이나 장소의 변경이 나타날 때 4격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규칙은 항상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이것은 목표를 지향하지 않는 장소내부 Intralokalität나 장소지속 Ortskonstanz을 목표지향성을 가진 장소전환 Translokalität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방향 개념이 3/4격 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 있다.

6) Vgl. O. Behagel(1923-1932), Bd.3. §522.

장소내부 및 장소전환의 개념은 in-그룹을 위한 격 규칙에 적합할 수 있다. 전치사관계를 일정한 공간 내에서 유효한 관계, 즉, 장소내부에 존재하는 관계로서 간주할 경우에 3격을 사용한다. 그와 반대로 이런 관계를 새로운 영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다시 말해서 장소전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한다면 4격을 사용한다. 우리는 장소내부와 장소전환개념의 명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Paul이 규칙을 형성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Paul에 따르면, 대상에 대해 공간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곳에 4격이 놓이고 이런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곳에 3격이 놓인다<sup>7)</sup>. 이런 규칙은 그것의 제시된 과제에 적합하게 보인다. 한편으로 in-그룹에 속하는 전치사들의 지배는 적어도 공간적이거나 공간적으로 전이된 전치사를 사용할 때 규칙에 따라 의의 없이 확정될 수 있다. 그 규칙은 (1)의 경우에서뿐만 아니라 (2)의 경우에서도 납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4격 표지와 3격 표지가 만나는 관계에서 그 규칙은 옳다고 평가한다.

Paul은 공간관계영역에서(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모든 격 규칙에 토대가 되는) 지속 관계를 장소내부개념으로, 발생 관계를 장소전환개념으로 강제적으로 간주함으로써 실제로 그 개념을 퇴색시켰다. 이런 개념의 포기는 더 나아가 격 규칙을 좀 더 쉽게 비 공간적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결국, 규칙은 격 표지가 전치사 관계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다시 말해서, 전치사구의 형태와 기능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전치사구의 격 형태에 대한 책임을 그것의 외부에 기능, 즉 동사의 종류로 미룬다면, 부자연스런 방식의 연결이 형성될 것이다.

### 3. 여러 전치사에 적용되는 격 규칙

3격은 근본적으로 지속 관계를, 4격은 발생 관계를 나타낸다는 규칙은 지금까지 용인된 것 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실히 강조하고 싶다.

7) Vgl. H. Paul(1968), S. 217ff.

Ley(1989)는 공간관계 내지는 공간으로 전이된 관계에 놓이게 될 때 전치사의 3 및 4격 지배가 이 규칙에 따라 아무런 문제없이 확정될 수 있다<sup>8)</sup>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다.

3격만을 지배하는 전치사들에는 bei, gegenüber, von, zu 그리고 nach가 있다. (9)의 예문들은 이런 전치사들에 의해서 표현된 공간관계가 실제로 지속 관계로 간주됨을 보여준다.

- (9) a. Er stand beim Fenster, er lief beim Fenster hin und her.  
 b. Er saß gegenüber dem Fenster.  
 c. Er kam vom Bahnhof.  
 d. Er saß zu ihrer Linken.  
 e. Er fuhr zum Bahnhof.  
 f. Die Mashinen flogen nach dem Nahen Osten.

방향전치사인 zu 및 nach와 관련해서 그들에 의해서 나타난 관계는 지속 관계로 간주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실제로 그 관계는 이동이 진행된 모든 지점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방향개념을 토대로 하는 격 규칙은 이런 3격 지배 전치사들과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von 관계는 모든 탈격의 이동지점에 지속되는 관계이다. 그래서 von에 대한 3격 표지도 마찬가지로 격 규칙과 일치하게 된다.

um, durch 그리고 gegen은 오직 4격만을 지배하는 전치사에 속한다. 논의된 규칙에 따라서 이런 전치사들에 의해 표현된 공간 또는 공간으로 전이된 관계는 전체적으로 새로 형성됨으로서 발생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um 및 durch에 관해서 H. Paul은 이런 전치사들은 공간을 넘는 범위이기 때문에 4격과 연관된다고 주장한다<sup>9)</sup>. 실제로 이런 도달범위 개념은 강제적으로 성립된다. um 내지는 durch 형태와 같은 도달범위형태 Erstreckungsfigur는 이동의 말기 부분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10)에서 um 내지 durch 관계에서는 정확히 정의된 이동 지점이 없다.

8) Vgl. O. Leys(1989), S. 112.

9) Vgl. H. Paul(1968), S. 279.

- (10) a. Die Kinder liefen um den Garten.  
b. Die Kinder liefen durch den Garten
- (11) a. Bäume standen um das Haus.  
b. Das Postamt ist um die Ecke.  
c. Die Diebe waren schon längst um die Ecke.

(11)과 같은 경우에 um 이동은 순수 정신적으로 실행된다. (11a-b)에서 um 이동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위치에 의해서 순수 정신이 구성된다. 반면에 (11c)에서 이미 완성된 um 이동은 정신적으로 실행된다.

전치사 entlang의 임시적인 4격 지배는 사건에 상응하며, 이런 전치사는 마찬가지로 도달범위의 개념을 허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전치사 gegen역시 4격 지배 전치사이다. (12)와 같은 문장에서 4격 표지는 명백하게 격 규칙과 일치한다.

- (12) Das Auto fuhr/prallte gegen den Baum.  
Mao schwamm gegen die Strömung.

위의 문장에서 이동의 말기부분에서 상반된 힘과 마주치는 이동의 관념이 매개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gegen 형태는 말기의 발생된 관계로서 상술된다.

- (13) Unsere Mannschaft strömte gegen die Verteidigung.

gegen 형태는 상반된 순간이 이미 뚜렷하게 전제되고 있다. 상반된 효과를 통해 언급된 이동을 가정함으로써 gegen의 사용은 (14)와 같은 문장에서 증명될 수 있다.

- (14) Er lehnte gegen die Mauer; er stand gegen das Licht.

위의 문장에서 gegen은 방향진술어로서 사용된다.



(15) Er macht einen Schritt gegen die Tür.

예를 들면 (15)에서는 zu 및 nach 처럼 지속된 관계에 있으므로 3격 표지가 성립되어야만 할 것 같다. 여기서 뚜렷하게 격 평형이 일어난다. 여기서 논의된 격 규칙의 가장 중요한 예외는 aus의 재배소이다. Ley(1989: 107)는 전치사에 의해서 나타난 관계는 발생의 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6) Die Kinder rannten aus dem Haus.

그리고 (16)과 같은 경우, 격 규칙에 의해서 aus에 대해 반드시 4격 지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 규칙은 모든 전치사들이 3격 및 4격 지배를 아무 구속 없이 이해하며, 공간 혹은 공간적으로 전이된 사용 3격 및 4격 지배에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교체되는 in-그룹이 규칙적용의 핵심영역이라고 본다. 여기서 이 규칙은 근본적으로 전치사의 공간적인 의미를 통해서 구속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그룹 외에 전치사 영역에서 이런 규칙은 진전은 되었지만, 어느 정도의 제약이 따른다. 이를 통해 격 규칙이 역사적으로 매우 느리게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해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격 규칙이 전치사적 격 사용을 완전히 납득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어쨌든, 전치사 그룹의 지배를 확정하기 위해서 언급된 규칙은 전치사적 영역 밖에서 거의 사용될 수 없다. 이 규칙은 4격 표지의 원형적인 경우를 뜻하는 직접목적어일 경우에 쓸모가 없다. 그럼에도 또한 발생되는 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

(17) Karl las die Zeitung.

(17)과 같은 관념은 전체적으로 새로 성립된 관계를 토대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17)의 문장은 Karl이 신문을 읽을 때까지 읽고 또 읽거나 아니면 Karl이 신문을 모두 읽을 때까지 신문을 읽는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에서 직접목적어는 말기의 발생관계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직접목적어의 4격 표지는 위에서 논의된 격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 4. 3격, 4격 표지의 원리 기술

(1b/2b)와 같은 문장에서 전치사관계는 말기에 발생한 관계이다. 동시에 전치사구에 의해서 표현된 공간, 즉, Saal의 in-영역은 주시되는 이동을 종결한다. 바꾸어 말해서 이 공간은 제한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와 반대로 3격 표지를 할 때 존재하는 전치사관계는 발생한 관계가 아니고 전치사에 의해서 나타난 공간은 제한적인 기능을 지시한다. (1a/2a)에서 Saal의 in-영역은 이동의 종결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즉 그 영역은 마지막 이동을 지정함으로써 그것의 외부 지시점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생성된/제한적인 대 생성되지 않는/비 제한적인 개념에 잠시 주목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4격 내지 3격 표지된 동사영역 밖에서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내지는 비제한적인 기능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논제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겠다. 현대 독일어에서 4격 및 3격 표지는 체계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치사구에 의해 나타난 격이 4격 표지일 때는 제한적인 것으로 3격 표지일 때는 비 제한적인 것으로 원리에 따라 기술할 수 있다. 4격과 3격은 기능적으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제한 개념에 대해서 전자는 긍정적으로 후자는 부정적으로 표시된다.

전치사영역에서 4격 표지를 할 때 근본적으로 생성 관계에, 3격 표지시에 지속 관계에 놓인다는 원리는 방금 형성된 일반적인 논리에 대한 동반현상으로 간주한다. 이런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구의 격 형태가 곧 그것의 기능과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구의 격 표지에 대한 답변은 이런 표지가 실제로 발생하는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4.1. 전치사 영역 및 직접목적어에서 4격 표지의 원리

우선 4격 표지에 관해서 살펴본다. 그것은 전치사구 외에도 공시적인 관점에서 직접목적어를 표시한다. 그때마다 4격 표지된 구에 의해서 나타난 격은 제한적인 기능 개념과 어느 정도까지는 연관성이 있다.

전치사영역에서 4격이 부여된 전치사구들은 제한적인 기능을 통해 격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미 위의 (1b/2b)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런 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즉, 하나는 종말 혹은 말기의 제한적인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확장 혹은 연장 제한적인 기능이다.

첫 번째 유형은 이미 위에서 나왔던 (1b/2b)예문에서 접했다. 전치사구에 의해서 나타난 공간, 즉 Saal의 in-영역은 말기의 제한적인 기능을 나타낸다. in-그룹의 모든 전치사들이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는다. 반대의 의미를 지닌 gegen과 같이 독점적으로 4격 지배만을 하는 전치사는 예외로 본다.

두 번째 유형은 um, durch, entlang 그리고 über와 같은 전치사와 관련해서 생긴다. 이런 전치사들은 생성관계를 나타내지만, 여기서 전치사구에 의해서 나타난 공간의 제한적 기능은 (1a/1b)와 같이 말기의 제한적 기능이 아니다. 이런 전치사들은 이동이 공간을 넘어선 전치사 목적어의 확장영역이다.

그밖에 우리는 전치사 aus가 발생관계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왜 3격을 지배하는가를 우리의 이론 틀 내에서 해명할 수 있다. 실제로 (16)과 같은 aus구는 탈격 이동의 종결이 아니라 출발-근원을 의미한다. 즉, 그 전치사구는 말기 제한적인 기능도 확장 및 연장의 제한적인 기능도 아니다. 그래서 4격 표지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치사구에 의해 나타난 격은 통사적으로 제한된 기능과 격조건하에서 의미역 thematische Rolle을 가지고 있다. 그 격이 공간적으로 사용되면, 장소격으로 기능한다. 이것은 (1b/2b)와도 관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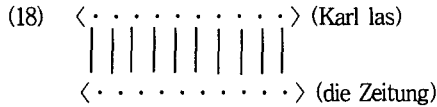
전치사영역외에 4격 표지는 직접목적어라는 동사 목적어를 표시한다. 우리는 더 나아가 직접목적어는 표지된 구의 원형 격을 의미한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직접목적어와 제한적 기능개념이 어느 정도까지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독문법에서 직접목적격은 동사 과정의 목표격 Zielgröße으로 표시된다. (5)에 의해서 설명된 바와 같이 목표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거나 필수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동사 과정에 기입되지 않은 점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이런 특징은 정도를 벗어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지언어학이 직접목적어를 공간적-은유적으로 (어쩌면 추상적인) 길의 종결점으로, 주어에 의해 시작된 사슬의 꼬리로서 해석<sup>10)</sup>한다면, 이런 기입을 전제로 한다. 목표가 직접목적어를 종결점으로 바꾸어 말해서, 말기 제한적 격으로서 간주한다면, 위의 예문 (17)에 의해서

10) Vgl. H. Glinz(1962), S.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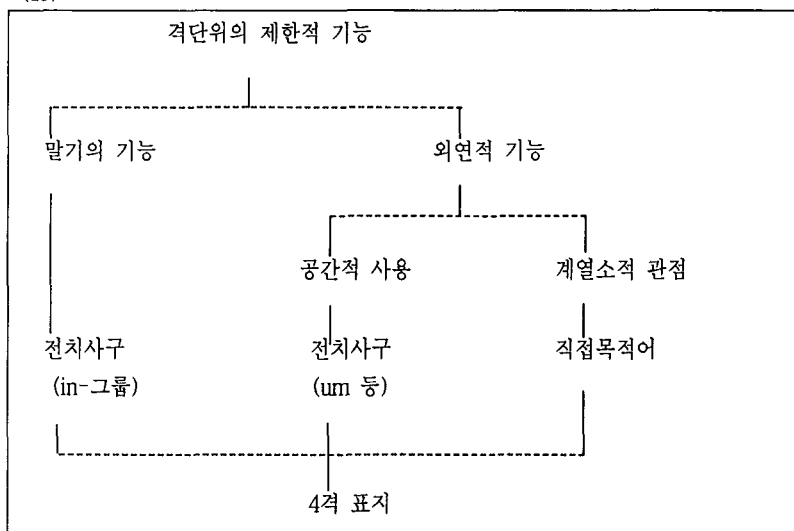
설명했던 것처럼, 적합하지 않은 발생관계를 강제로 나타내야만 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Dowty Paradox라고 칭한다. Dowty Paradox란, 직접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의 관계는 직접목적어의 종결의 특성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목적어에서 동사 과정을 제한하는 격을 다루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것과 4격 표지가 일치한다. 이런 제한적 기능은 말기-제한적이 아니라, 외연-제한적인 기능이다. 직접목적어란, 계열소적인 관점에서 동사 과정의 한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17)에서 신문의 표상은 독자의 표상과 연관성이 있다. 즉 전자인 (17)에서의 관계는 (18)과 같이 시각화 할 수 있다. Karl의 독서에 관한 표상은 신문의 표상에 의해서 그것에 관한 완전한 과정적 진행을 동반하고 한정한다. 계열소적인 한계가 논의되면서, 소위 Dowty Paradox는 근거가 없다.



정리해보면, 4격이 부여된 전치사구들이 공간적 및 공간적으로 전이되어(예: 시간) 사용될 때 그것에 의해 나타난 격은 말기-제한적 기능이거나, 외연적-제한적인 기능을 나타낸다. 이와 반대로 4격이 부여된 직접목적어는 모든 사건을 개념화 할 때 외연적-제한적 기능을 지시한다. 현대 독일어의 4격 표지의 보편적 자질 및 보편적 원리는 표지된 구에 의해서 나타난 격 단위에 제한적 기능이 표시되는 것이다. (19)에서 4격 표지의 기능을 도식으로 정리·기술해 본다.

(19)



#### 4.2. 전치사영역 및 간접목적어에서 3격 표지의 원리

다음에서 3격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전치사구외에 간접목적어에도 3격이 부여된다. 3격 표지에 관한 한, 통사적 원리 외에 의미역원리 thematische Prinzip을 가정할 수 있다. 3격 표지는 4격 표지와는 달리, 비제한적인 개념과 관련이 있다. 3격 표지 원리는 4격 표지 원리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형성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로 바꿔 해석할 수 있다. 3격이 표지된 구에 의해 나타난 격단위는 동사과정과 관련해서 외부의 지시격 Referenzgröße로 간주될 수 있다. 4격 표지 시 동사 과정에 삽입된 제한적인 격이 문제가 되고, 3격 표지시에 동사 과정에 삽입되지 않은 비 제한적인 격이 다루어진다. 4격이 표지된 전치사 목적어는 3격이 표지된 전치사 목적어 보다 동사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 3격이 표지된 전치사구에 의해 나타난 격은 예를 들면, (1a/2a)에서 장소격으로, (5)에서는 목적어로, (16)에서 근원으로 사건을 기술하기 위해서 특수적, 의미역적인 관계에 놓인다.

전치사 영역외에 간접목적어에도 3격이 부여된다. 이런 격표지를 판단할 때

(20)과 같은 ditransitiv 구조와 (21)과 같은 nicht ditransitiv구조를 구별해야만 한다.

(20) Er schenkte seiner Frau Blumen: wasch dir die Hände, der Junge  
öffnete dem Lehrer die Tür.

(21) Sie hilft ihrem Mann: das Buch gehört mir, das geht mir zu weit, du  
bist mir ein Kerl!

위의 두 가지 경우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i) (20)과 같은 ditransitiv 구조에서 간접목적어 indirektes Objekt에 3격을 부여하는 것과, 그와 반대로 직접목적어에 4격을 부여하는 것은 통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직접목적어의 격 단위가 동사과정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기능을 지시한다면, 간접목적어의 격단위에도 당연히 그와 반대인 기능이 나타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간접목적어의 격은 계열소적 관점에서 동사와 직접목적어에 의해서 함께 매개된 표상의 외연을 제한한다. 동사 그 자체에 의해서 매개된 과정과는 달리 간접목적어의 격은 제한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4격이 아닌 3격이 표지된다. (22)과 같은 경우 비 제한적인 간접목적어의 격 개념이 제한적인 직접목적어의 격 개념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2a)의 직접목적어는 새로운 직접목적어가 생기는 (22b)에서 간접목적어의 역할로 밀려난다.

(22) a. Er umgürtete ihn mit dem Schwert.

b. Er gürtete ihm das Schwert um.

간접목적어의 격단위는 의미역의 통사적 기능과 관계가 있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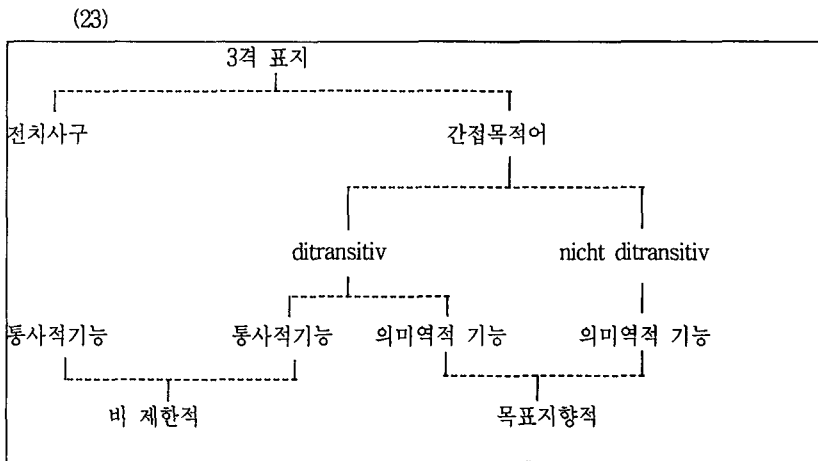
(ii) (21)과 같이 간접목적어가 nicht ditransitive 구조에 등장할 때 그것의 통사적 동기화가 제외된다. 즉, 비 제한적인 기능을 갖는 격이 아니라 반대로 제한적인 기능을 갖는 격이 직접목적어의 부재를 대행한다. Glinz는 이러한 격을 **Zuwendgröße**라고 한다<sup>12)</sup>. 여기에서 3격이 비 제한적인 기능이 아니라, 제한

11) Vgl. H. Wegener(1985), S. 263.

적인 기능을 표시한다는 가정은 체계에 일치하지 않으며, 모순을 의미할 수 있다. 우리가 (21)의 경우에 간접목적어에 3격 표지를 하는 것은 그것의 의미역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ditransitive구조에서 3격을 표지하는 것은 nicht ditransitiv 구조에서 3격 표지의 일반적인 원리가 된다.

그러므로 전치사 영역에서 3격 표지는 표지된 격을 비 제한적인 것으로 표시함으로써 통사적인 데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ditransitiv 구조에서 간접목적어에 3격을 부여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통사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간접목적어의 격은 목표지향적 격단위와 동등한 역을 지님으로써 통사적인 근거에 의미역을 덧붙인다. nicht ditransitiv한 간접목적어 구조에서 직접목적어에 대한 계열소적 내지는 통사적인 대조가 나타난다. 그 구조에서 간접목적어의 격은 더 이상 비 제한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의 3격 표지는 통사적이 아니라 의미역적인 근거에 의한 것일 수 있다.

3격 표지에 대한 두 가지 원리들을 (23)과 같이 도표로 기술해 본다.



위의 도표는 3격 표지가 일부는 통사적으로 다른 부분은 의미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시한다. 두 가지 동기화는 상호공기 konkomitant적으로 나타난다. 원인의 의미를 지닌 3격 표지된 전치사구에 의해 대두된 격은 아직까지는

12) Vgl. H. Glinz(1962), S. 165.

엄격히 비 제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문법에서 제시된 격 규칙들은 실제로 이중지배로 인해서 격 규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in-그룹전치사와 같은 매우 제한된 영역만을 주시해 왔다. 전치사와 관련해서 4격은 발생, 3격은 지속의 관계를 나타낸 이 규칙은 실제로 유용한 단 하나의 규칙이다. 3격과 4격의 대립은 정지 대 이동의 관계 내지는 위치 대 방향관계라는 의미적 반대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이전의 격 규칙들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 in-그룹의 전치사와 관련해서 제시된 모든 격 규칙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치사영역에서 우리가 설정한 일반적인 격 규칙을 어떻게든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영역에서 4격 표지를 위해서 제시된 격의 제한적 기능은 발생관계의 개념을 지닌 모든 전형적인 경우에서 직접적인 이동의 개념을 암시하고 있다. 이전의 전통적인 격 규칙들은 일반적인 격 원리라는 동반현상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것은 그것의 제한된 목표설정 내지는 이와 같은 일반적 격 규칙원리에 도달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저지되었다.

(19)의 도표에서 보여주듯이, 이런 제한적인 기능은 말기 및 외연적인 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런 일반적인 원리는 전치사 영역에서 4격 지배 전치사에 공간을 적용함으로써 제한될 수 있다. 추상적 의미로 확대되면서 그 원리가 적합할 수 있거나 소멸될 수 있다. 그래서 격 표지는 특수한 현상인 듯 하다. 이런 연구상황에서 몇 가지 전치사들의 체계적인 연구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4격 표지는 하나의 통일된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제시한다. 즉 그 원리는 표지된 구에 의해 나타난 격이 제한적인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데에 토대를 두고 있다.

3격 표지는 하나의 통일된 원리로 나타날 수 없었다. 3격은 전치사영역 내지는 ditransitiv구조에서 4격의 반대개념으로 등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3격은 통사적 기능을 비 제한적으로 표시한다. nicht distransitiv구조의 간접목적어에



서 3격 표지는 이런 원리에 따라 더 이상 증명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의미역에 의해서만 성립 될 수 있다. (23)의 도표는 현대 독일어의 이중 3격 표시의 동기화에 대해서 요약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격을 제한적인 내지는 비 제한적인 것으로 표지하는 것은 현대 독일어에서 3격 내지 4격 표지에 관해 파악할 수 있는 광범위한 원리이다.

위에서 통사적 내지 의미역으로 격표지 하는 것에 관해서 논의했다. 4격은 순수 통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와 반대로 3격은 부분적으로 통사적으로 다른 한편으로 의미역적으로 동기화된 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의미역적으로 동기화된 격표지의 개념에 관한 한 그 자체로 통사적으로 제한된 격 표지 개념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격표지는 그 것이 구일 경우에 한해선 통사적으로 제한되며 그것의 통사적인 기능은 의미역의 도움 없이도 정의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통사적인 격 개념은 구조격(추상격)과 지배-결속 이론 Rektions- und Bindungstheorie 안에서 구별될 수 있다. 이런 원리에 따라 4격 표지는 통사적으로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 표시된 통사적인 기능들은 실제로 의미역에 따라 증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이 원리는 3격 표지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통사적으로 제한되었다고 간주해야만 한다.

현대 독일어에서 의미역과 관련이 없는 통사적 기능들은 4격 표지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제한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격 개념은 4격 표지의 보편적인 토대이다. 이와 같은 표지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원리가 순수 구조적 바탕 하에서 증명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3격 표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상실된 개념들의 오류를 통해서 나타난 기능들을 알려준다.

#### Literaturverzeichnis

- Behagel, O.(1928): Deutsche Syntax. Eine Geschichtliche darstellung. Satzgebilde. Bd.3  
 Brinkmann, H.(1962): Die deutsche Sprache. Gestalt und Leistung. Düsseldorf.  
 Dal, I.(1962): Kurze deutsche Syntax auf historischer Grundlage. 2. Aufl.

Tübingen.

- Draye, L.(1992): Zum Trajetiv. Ein Kapitel aus einer kognitiv orientierten niederländisch-deutschen Kontrastivgrammtik, in: Leuvense Bijdragen 81, S. 163-203.
- Duden(1995):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5. Aufl. Mannheim.
- Erben, J.(1972): Deutsche Grammatik. Ein Abriß. München.
- Glinz, H.(1962): Die innere Form des Deutschen. 3. Aufl. Bern/München.
- Langacker, R.(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II. Stanford.
- leys, O(1989): Aspekt und Rektion räumlicher Präpositionen., in: Deutsche Sprache 17, S. 97-113.
- Leys, O(1993): Reflections on the German Case System, in: Leuvense Bijdragen 82, S. 305-328.
- Ley, O(1994): Die Präposition zu als Bezeichnung der Lage und Richtung, in: H. Löffler/K. Jakob/B. Kelle, Texttyp, Sprechergruppe, Kommunikationsbereich, Studien zur deutschen Sprache in Geschichte und Gegenwart (Festschrift H. Steger), Berlin, S. 271-276.
- Moilanen, M.(1979): Statische lokative Präpositionen im heutigen Deutsch. Wahrheits- und Gebrauchsbedingungen. Tübingen.
- Paul.H(1968): Deutsche Grammatik. 4. Aufl. Syntax <2. Hälfte>. Halle
- Postma, W. K.(1974): Hochdeutsche Sprachlehre. 2. Aufl. Groningen.
- Rice, S. A.(1987): Towards a Cognitive Model of Transitivity. Diss. Univ. Calif. San Diego.
- Schmidt, W.(1965): Grundfragen der deutschen Grammatik. Berlin.
- Smith, M.(1987): The Semantics of Dative und Accusative in German. An Investigation in Cognitive Grammar. Diss. Univ. Calif. San Diego.
- Schröder, J.(1986): Lexikon deutscher Präpositionen. Leipzig.
- Taylor, R. J. (1989):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 Taylor, R. J.(1993): Prepositions. Patterns of polysemization and strategies of disambiguation, in: C. Zelinski-Wibbelt(Hrsg.), The Semantics of Prepositions, Form Mental Processing to Natural Language Processing, Berlin/New York, S. 151-175.
- Wegener, H.(1985): Der Dativ im heutigen Deutsch. Tübingen.

- Wegener, H(1990): Komplemente in der Dependenzgrammatik und in der Rektions- und Bindungstheorie. Die Verwendung der Kasus im Deutschen,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18, S. 150-180.  
Welke, K(1994): Thematische Relationen, in: Deutsche Sprache 22, S. 1-18.

### Zusammenfassung

## Prinzipien der Dativ- und Akkusativ-Markierung i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Rhee, Young Mi(ChungAng Univ.)

In diesem Beitrag habe ich zu zeigen versucht, dass eine bestimmte, im Zusammenhang mit Präpositionen der in-Gruppe formulierte Kasusregel einen Geltungsbereich aufweist und weitgehend auch die exklusive A(Akkusativ)- bzw. D(Dativ)-Rektion von Präpositionen zu bestimmen. Ich glaube einsichtig gemacht zu haben, dass die A/D-Markierung im präpositionalen und im nicht-präpositionalen Bereich weitgehend nach einem einheitlichen Prinzip erfolgt.

Aus meinem Beitrag ergibt sich dass A-Markierung in der Gegenwartssprache einem einheitlichen Prinzip unterliegt, der Bezeichnung der limitativen Funktion der von der markierten Phrase vertretenen Größe. Ihrerseits lässt sich die D-Markierung nicht nach einem einheitlichen Prinzip deuten. Der Dativ kennzeichnet im Präpositionalbereich sowie in ditransitiven Konstruktionen die syntaktische Funktion als eine nicht limitative. Beim indirekten Objekt in nicht-ditransitiven Konstruktionen ist die D-Markierung nicht mehr nach diesem Prinzip zu begründen. Sie erfolgt nur aufgrund thematischer Rollen.

Die Kennzeichnung einer Größe als eine limitative bzw. nicht-limitative ist das Prinzip, das sich hinsichtlich A-bzw. D-Markierung in der Gegenwartssprache erkennen lässt.

Der A wurde ein syntaktisch motivierter Kasus, der D hingegen ein teilweise syntaktisch, teilweise thematisch motivierter Kasus genannt. Eine Kasusmarkierung gilt hier als syntaktisch bedingt, wenn sie eine Phrase betrifft, deren syntaktische Funktion ohne Zuhilfenahme thematischer Rollen definiert werden kann. Nach diesem Prinzip wurde die A-Markierung eine syntaktisch bedingte genannt, weil die von ihr

gekennzeichneten syntaktischen Funktionen nicht nach thematischen Rollen zu begründen sind. Dies gilt andererseits nur teilweise für die D-Markierung, so dass sie als eine nur teilweise syntaktisch bedingte gelten muss.

**[검색어]** 3격/4격 표지, 지배-결속이론, 격표지  
D-/A-Markierung, Rektions- u. Bindungstheorie,  
Kasusmarkierung

이영미

456-75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중앙대학교 외국어대학 독어학과

valenz@hanmail.net